

윤석열·이재명 첫 통화서 서로 덕담 나눠

尹 “대표 당선 축하”, 李 “성공한 대통령 되시길” 양측 “민생입법 협조, 의견 다른 것은 조율” 공감



축하하는 받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첫 직접 통화를 하고 덕담을 나눠 그동안 상대방 일이라면 무조건 협조할까 싸우기만 했던 여야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예방한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빠른 시간 내 만날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이 수석과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이 수석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하신다”고 제안하자, 이 대표가 흔쾌히 “좋습니다”며 응해 약 3분간에 걸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있으시면 저도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

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민생 법안의 입법과 관련해 서로 협조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을 나눴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덕담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 주셔 가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화답했다.

이후 이 대표가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자리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고 한다.

이 대표가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

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당 안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밝히면서 통화는 마무리됐다.

다만 이날 통화 과정에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이 수석은 “당의 총재가 아니니 영수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그런(만나) 일정을 만들어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도 “민생·개혁 입법에 관한 부분은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치해서,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만큼, 형식과 절차가 뒤 중요하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민주당-구례군, ‘섬진강권 관광벨트’ 조성 꾀 걸음

당정협의회서 관광활성화·케이블카 등 집중 논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위원회와 구례군이 지난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영호남 화합을 위해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통합 관광벨트 조성으로 구례군은 섬진강 생태자원과 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초광역관광권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인구 활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구례군은 ▲오산 권역 관광 클러스터 조성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지리산 케이팜(치유농업) 캠퍼스 조성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지리산 산림교육센터 조성 ▲국도 18호선(구례읍-구례구역) 확·포장 ▲국도 19호선(냉천IC-화계) 확·포장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천년고찰 문화탐방로 ‘무소유길’ 조성 등을 꼽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구례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김순호 구례군수가 직접 나서 최근 환경부의 신

청 반려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해법 마련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군수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4개 시·군이 1개 노선을 합의하라는 환경부의 조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직접 나서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실행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서동용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또 국도비 사업으로는 ▲구례수목원 무장에 나눔길 조성 ▲친환경종합연구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매제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동용 국회의원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구례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군수, 군의원, 도의원 여러분 노력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주요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구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구례군과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광양시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다음달 2일 곡성군과의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수습부터” vs “권성동 즉시 사퇴”...출구 없는 與 내홍

오전 의원총회서 당헌당규 개정 등 갑론을박...장제원은 불참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 수습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내 내용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정상궤도를 향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말인 지난 27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단 수습의 키를 맡기고 새 비대위를 띄우기로 결론을 내린 후에도 반대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당장 윤해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말형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 압박이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일단 새 비대위

를 출범시켜 당 수습부터 매진한 뒤 권 원내대표에게 거취를 물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런 권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이면엔 향후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깔려있던 해석도 나온다.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는 ‘새 비대위 후 조기 전당대회’에 무게를 싣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을 비롯한 비주류는 ‘최고위 복원과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비주류

측에선 이 전 대표의 6개월 징계 후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마자 의원총회를 열었다. 새 비대위 전환에 앞서 고쳐야 할 당헌·당규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의총은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됐다. 115명의 소속 의원 중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의총은 법원 결정 후 혼란을 의식한 듯 긴장 속에 시작됐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함께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 당헌 개정 시 열어야 할 전국위의

장인 서병수 의원 등이 자리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의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다. 최외위 체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위기를 신속하게 수습해야 한다. (지난 주말) 의총 결정을 우리 스스로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거취 논란에 즉답을 내리기보다는, 일단 새 비대위를 띄우기 위한 수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의원들 간 당헌당규 개정 등에 관한 격론이 벌어졌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스

여의도 클릭

김희재 ‘빛 대물림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은 30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



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기자

김승남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0일 한국마사회 사상 초유의 말 바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경주의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出走)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된 말과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신 ‘아라장군’이 출주하는 사



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주한 말이 출주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

를 무효로 하고,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한국마사회가 우승한 말의 마권을 구매한 이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다시 환수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승마투표 적용자가 구입한 마권 판매액과 이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